한국민 54% "방위비 분담금 협상 실패 땐 주한미군 감축 가능"

한국인 10명 중 9명(92%)이 한미 동맹은 지지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리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는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미국과의 분담금 협상의 합의에 실패할 경우 주한미군을 감축할 수 있다는 응답도 절반(54%)에 달했다.

17일 '뉴스1' 이 워싱턴포스트(WP)의 전날 보도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미 싱크탱크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FA)는 이날 '한국인은 한미 동맹에 대해 긍정적이지만 트럼프 대통령 요구에는 반대' (While Positive toward US Alliance, South Koreans Want to Counter Trump's Demands on Host-Nation Support)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92%가 미국과의 동맹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이들 중 63%는 한미 동맹이 양국 모두에 이익이라고 평가했다. 26%는 주로 미국이 이익을 본다고 답했고 8%는 한국이 주된 수혜자라고 했다.

응답자 94%는 미국과의 관계가 한국 안보에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들 중 매우 중요하다고 본 이들이 66%였고, 29%는 다소 중요하다고 했다.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더라도 한미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62%로, 미국과 관계가 악화하더라도 중국과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30%)의 두 배였다.

응답자 78%는 한국이 북한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이 방어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들 중 31%는 '매우 자신한다' 고 했고 47%는 '어느정도 자신한다' 고 말했다. 한편 56%는 주한미군의 도움이 없어도 한국군 스스로 북한과의 군사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주한 미군에 대한 지지도 역시 높은 편이었다. 응답자의 74%는 주한 미군 장기 주둔을 지지했고 87%는 미군 주둔이 한국 안보에 큰 도움이 된다고 봤다.

이처럼 국민 대다수가 한미 관계를 지지했지만,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곧이곧대로 응해선 안된다는 응답이 94%로 압도적이었다.

한미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합의에 실패할 경우 동맹을 유지하되 주한 미군을 감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54%)을 넘었다. 동맹과 주한미군 규모 모두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33%로 나타났다. 9%는 동맹을 유지하되 주한 미군은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는 합의 불발 시 동맹을 파기해야 한다고 봤다.

이번 조사는 한국국제교류재단(KF)의 지원을 받은 CCFA가 한국 리서치와 함께 이달 9~11일 한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를 통해 실시됐다. 신뢰수준은 95%, 오차는 ±3.1%포인트다.

주민번호 지역 표시 삭제 성별 표시는 그대로

내년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지역번호를 없애고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주민등록번호 체계가 개편된다. 1975년 현재 주민등록번호 체계로 바뀐 지 45년 만이다. 그동안 국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된 '지역번호를 통해 주민등록번호가 쉽게 추정된다' 는 비판을 정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개인정보 보호가 점차 중요해지는 시대에 지역번호 변경만으로는 개인 인권 차원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정부가 장기적인 계획을 내놔야 한다." 고 밝혔다.

18일 '서울신문' 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전날 생년월일, 성별, 지역번호를 포함해 13자리로 구성돼 있던 주민등록번호에서 지역번호를 없애고 성별 뒤의 6자리에는 임의번호를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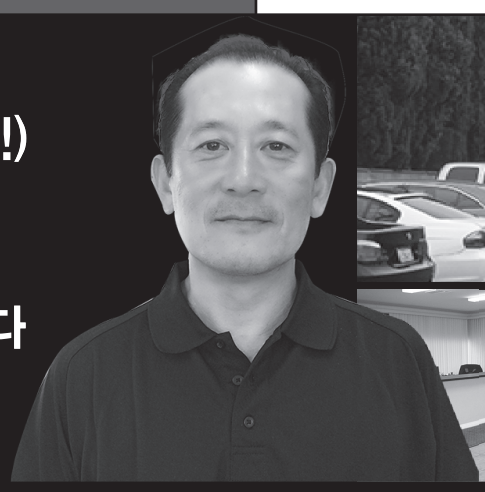
행안부 관계자는 "그간 주민등록번호에 있는 지역번호로 특정 지역 출신을 차별하는 등 문제가 발생해 2017년부터 주민등록제도 발전 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면서 "공공기관, 병원 등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기관들이 치러야 하는 추가 변경 비용이나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생년월일, 성별은 유지하되 지역번호를 폐지하는 방안으로 최종 결정했다." 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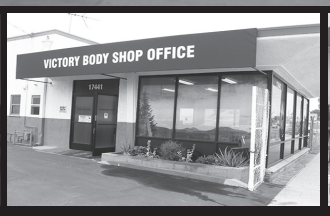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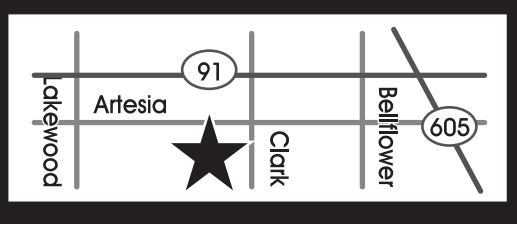
행안부에 따르면 현행 주민등록번호는 1975년부터 앞 부분에 생년월일, 뒷 부분에 성별, 지역 번호 등를 포함한 총 13자리로 구성되어 있다. 성별 한자리, 읍·면·동 고유번호 네자리, 신고 순서에 따른 일련번호 한자리, 검증번호 한자리가 현행 주민등록번호의 뒷자리이다.

행안부는 2020년 상반기 중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이후 현재 구축 중인 차세대 주민등록정보 시스템에 번호 자동 부여 기능을 반영하고 10월부터 새로운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적용할 예정이다.

그러나 여성계를 비롯한 일각에서는 성별표시 번호가 바뀌지 않는 것을 두고 성차별이라는 지적을 쏟아내고 있다. 여성단체들과 인권단체는 2016년에도 주민등록번호에 성별을 표시하는 것이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은 " '남성은 1, 여성은 2' 와 같은 식으로 성별을 표시해 온 정책은 여성을 사회적으로 차별해 온 것" 이라고 비판했다.

또 생일과 성별만 알면 주민등록번호 중 7자리를 알아낼 수 있어 여전히 보안이 취약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34년을 오직 한 길
벨플라워/세리토스/다우니/플러튼/롱비치/놀웍
빅토리 바디샵
VICTORY BODY & SHOP
LIFETIME WARRANTY!
최대의 시설 / 만족한 서비스 / 저렴한 가격
✓보험 수리 전문
(일단, 전화 먼저 주세요!!)
✓Lease Return
✓보험 없는 분들 오시면
부담없이 수리해 드립니다
✓전화 or 방문상담 환영
✓Towing & Rent Car




☎ (562)920-9745~6
17441 Clark Ave. Bellflower, CA 90706
Email: victoryautobody@gmail.com